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① 03. ② 04. ④ 05. ① 06. ④ 07. ④ 08. ③ 09. ⑤ 10. ①
 11. ③ 12. ②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② 20. ①

1.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그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원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의 뜻을 헤아려 자유 의지를 남용하지 말고 선을 실천해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최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③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최고선은 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④ 주지주의적 입장을 지닌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삶의 태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식이 곧 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⑤ 자율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주장한 칸트가 강조한 삶의 태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2. 석가모니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고성제(苦聖諦), 집성제(集聖諦), 멸성제(滅聖諦), 도성제(道聖諦)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사성제)]를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명(無明)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리고 욕망은 절제되어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석가모니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늘 변화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 ③ 석가모니에 따르면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 모두에 나쁨의 원인이 있다.
- ④ 석가모니에 따르면 인간의 의도적 행위, 즉 업(業)으로 인해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 ⑤ 석가모니에 따르면 팔정도(八正道)는 도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 걸어야 할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3. 인의예지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고, ㉠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性]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이다. 이러한 기호에는 형구(形軀)의 기호와 영지(靈智)의 기호가 있다. 그리고 인의예지라는 덕은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이다. 다시 말해 인의예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功(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형구의 기호'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사단(四端)의 '단'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인간의 성(性)에 대한 설명이다.

4. 베이컨과 데카르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근대 경험주의 사상가인 베이컨이고, 을은 근대 이성주의 사상가인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우상의 타파와 귀납적 탐구 방법을 강조하였고,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와 연역적 탐구 방법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진리를 얻는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ㄴ). 그리고 데카르트는 베이컨과 달리 방법적 회의를 거쳐야만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연역적 방법을 중시한 사상가는 데카르트이다.
- ㄷ. 경험을 지식의 근원으로 보고 실험을 강조한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경험과 실험보다 이성과 이성적 추론을 강조하였다.

5. 장자와 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장자이고, 을은 노자이다. 장자는 지인(至人) 또는 진인(真人), 천인(天人), 신인(神人), 성인(聖人) 등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고 추구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체의 분별적 관념을 잊고[坐忘(좌망)] 마음을 깨끗이 비워[心齋(심재)] 소요(逍遙)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다. 소요란 특정한 목적 없이 노니는 것으로서, 어떠한 외물(外物)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인 절대 자유의 상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장자에 따르면 우리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봄으로써 선악미추의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 ③ 노자에 따르면 도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 ④ 노자에 따르면 도가 사라지자 각종 규범과 제도가 생겨났다.
- ⑤ 노자와 장자에 따르면 예법(禮法)은 사회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다.

6. 맹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맹자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네 가지 선한 마음[四端(사단)], 즉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마땅하고 떳떳한 행동을 반복하면[集義(집의)]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운[浩然之氣(호연지기)]이 길러진다(ㄱ). 또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은 의(義)의 단(端)이며(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의(仁義)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ㄹ.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따라서 본성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다. 맹자는 존심양성(存心養性), 즉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7. 최제우, 이항로, 신기선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이고,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이며, 병은 동도서기론적 개화론자인 신기선이다. 최제우와 이항로는 모두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평안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최제우는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후천 개벽을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이항로는 성리학적 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만민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지 않았다.
- ③ 신기선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과 군사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이항로와 신기선은 전통적인 정치 체제의 혁파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지키려고 하였다.

8. 로크와 루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로크이고, 을은 루소이다. 루소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예속이라는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된 개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주권자이자 입법자가 되어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입법권도 가져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로크에 따르면 입법권은 자연법에 부합해야 한다. 자연법은 입법자들을 포함한 만인에게 영구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 ② 로크는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분할을 강조하였다.
- ④ 루소에 따르면 통치자도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통치자가 행사하는 힘은 일반 의지와 법 안에 있는 힘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 ⑤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

9.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질적 공리주의 사상가인 밀의 주장이다. 밀은 쾌락들을 평가할 때는 그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 원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야 하며(ㄴ), 우리는 질이 낮은 저급한 육체적 쾌락보다 질이 높은 고상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ㄷ). 그리고 비교되는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쾌락이 질적으로 더 수준 높은 쾌

락이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공리주의 사상가인 밀은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아니라 행위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하였다.

10.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 좋음' 을 추구하며, 최고의 좋음은 행복이다. 그는 좋음 자체가 현실 세계와 분리된 이데아계에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존재한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좋음의 존재 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하나의 좋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좋음들의 가치가 동등한 것은 아니다. 여러 좋음들 중에서 행복은 최고의 좋음이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좋음이다.

11.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과 사단칠정론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며, 칠정의 선한 측면이다. 칠정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이황은 사단을 도덕 감정으로, 칠정을 일반 감정으로 보았다.
- ②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이다.
- ④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기에, 사단은 칠정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 ⑤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이황과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한 이이는 모두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보았다.

12.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키르케고르이고, 을은 하이데거이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보편적 윤리 규범에 따라 살아가지만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다.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가능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신이 곧 자연이라고 본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의 신 관념을 지닌 사상가이다.
- ③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회피하기보다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다.
- ④ 하이데거는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비본래적 실존으로 규정하였다. 비본래적이라는 말은 내가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 ⑤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주관적인 진리를 중시하였다.

13. 자유에 대한 벌린과 현대 공화주의 사상가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현대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이고, 을은 현대 공화주의 사상가이다. 현대 공화주의 사상가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를 참된 자유로 보았으며, 이러한 자유는 법에 의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벌린은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으며,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도 확대된다고 보았다.
- ② 벌린은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이다. ‘~를 향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다.
- ④, ⑤ 현대 공화주의 사상가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간섭의 부재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14.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주희와 달리 격물을 ‘마음이 드러난 뜻[意]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하였다(ㄷ). 그러나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고[存天理去人欲(존천리거인욕)] 주장하였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주희는 마음이 성과 정을 포괄한다고[心統性情(심통성정)] 보았다.
- ㄴ. 주희는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 앎의 선후를 따지자면 도덕적 앎이 먼저라고[先知後行(선지후행)] 보았다.

15. 공자와 목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공자이고, 을은 목자이다. 덕치(德治)를 강조한 공자는 통치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백성이 편안하도록 다스려야 한다고[修己安人(수기안인)] 주장하였다(ㄴ). 겸애(兼愛)를 강조한 목자는 천하에 가장 해로운 것이 전쟁이라고 보고 침략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非攻(비공)] 주장하였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공자는 인과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했지만, 소국과민의 실현을 주장하지 않았다. 소국과민은 노자가 주장한 내용이다.

ㄴ. 존비친소의 구별이 없는 사랑, 즉 겸애는 묵자만이 강조하였다.

16. 스피노자와 에픽테토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피노자이고,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스피노자는 지복이 신에 대한 직관적 앞에서 나오는 정신의 만족이라고 보았으며, 에픽테토스는 행복이 자연에 따르는 삶, 이성 따르는 삶에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스피노자와 에픽테토스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는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적 신 관념을 가졌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을 ‘초월적’ 신으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스피노자와 에픽테토스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스피노자와 에픽테토스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는 인간이 세계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④ 스피노자와 에픽테토스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7. 흄과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흄이고, 을은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며,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예외 없이 보편화 가능한 법칙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흄은 자연적 성향인 공감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② 흄에 따르면 덕과 악덕은 인간의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③ 칸트에 따르면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흄은 도덕적 선악의 구분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칸트는 감정은 보편적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18. 에피쿠로스가 벤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벤담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 소극적 쾌락주의자이며,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 양적 공리주의자이다. 그러므로 에피쿠로스는 벤담에게, 쾌락의 양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벤담은 개인적 쾌락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쾌락이라고 보았다.
- ② 인간이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공통된 입장이다.
- ③ 벤담은 순수성을 쾌락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보았다.
- ④ 쾌락이 행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적도 된다는 것은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공통된 입장이다.

19.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가인 스미스이고, 을은 수정 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이며, 병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의 입장을 지녔고,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정부 기능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케인스는 스미스와 하이에크에게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 정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케인스는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 ③ 케인스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였다.
- ④ 하이에크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기능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 ⑤ 하이에크는 정부 규모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20. 이상 사회에 대한 모어와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한 모어이고, 을은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 롤스이다.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제시한 모어는 재산의 사적 소유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ㄱ).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롤스는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